



2010

입학사정관제와 함께하는 **대학입학의 꿈**, 충남대학교
대학입학사정관제도

2010

입학사정관제와 함께하는 **대학입학의 꿈**, 충남대학교

대학입학사정관제도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http://www.cnu.ac.kr>

나의 꿈을 펼쳐갈
도전의 문이 열린다!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입학사정관의 다짐

[낭중지추(囊中之錐)]

‘주머니 속에 숨겨진 송곳’이란 뜻으로 끝이 뾰족한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두면 그 끝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처함에 있어 아무리 능력과 재능을 감추려 해도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기 마련이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마치 굴레처럼 느껴지는 입시라는 시간 속을 걷고 있지만 스스로의 능력과 감춰진 끼는 숨길데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낭중지추의 재능과 끼를 보고자 합니다.

때문에 수면위 유빙의 꼭지점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수면아래 보이지 않는 빙산의 진면목을 보기위해 차가운 바다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도록
우리 충남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수능시험을 얼마 남겨 놓지 않았던 어느 날...

수능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수능시험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 단 한 번의 시험과 대학입학으로 인생의 등급이 결정되고, 역전이 불가능한 것은 수능의 병폐가 아닐 수 없다.

...

오바마는 청소년기 시절 모범생이 아니었다. 백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이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으며 고등학교 때 담배, 술, 마약을 하는 비행 청소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LA근교 지역 대학 옥스덴탈 칼리지에 입학한 후 대학농구선수로 활약하고 정치동아리를 만들어 남아프리카 인종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아이비리그 콜럼비아 대학 편입 후에 하버드대학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었다.

...

우리나라 현실에서 성적이 안좋은 뿐 아니라 비행 청소년이었던 학생을 명문대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진정한 입시는 오로지 당장의 성적이 모자란다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입시가 아닐까? 진짜 명문대는 좋은 성적표를 가진 학생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진 가능성을 실제 능력으로 키워주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명문대학이 아니라 명문 직장 대기소일 뿐이다.

2008년 11월 10일
MBC FM 라디오 <이외수의 '연중유펙'> 중에서

불우한 비행 청소년이었던 오바마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키운건 단지 미국의 교육제도 하나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 이력과 생각, 성취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통해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 관제도가 오바마로 하여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의 꿈을 펼쳐갈 도전의 문이 열리다!
대 학 입 학 사 정 관 제 도

《 Contents 》

- #01. 뭘미? 입학사정관제는... ★☆☆ 04
- #02. 흑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오해 ★☆☆ 07
- #03. 도전! 입학사정관제에 도전하라 ★☆☆ 08
- #04. 가자! 충남대학교, 입학사정관제와 함께 ★☆☆ 10
- #05. 아하! 전문가에게 듣는 입학사정관제도 ★☆☆ 12

#01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입학사정관제와 함께 하는
대학입학의 꿈, 충남대학교
대학입학사정관제도

뭘미?

뭘미?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제도란?

본 제도는 대학이 입학업무만 담당하는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선진화된 입시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시험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부 등 정량적인 성적뿐 아니라 개인 환경, 특기, 대인 관계, 논리력, 창의력 등 개인의 잠재력까지 정성적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입학 허가 여부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입학사정관은?

Admissions Officer

입학사정관은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연중입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입시전형에 임하여서는 제출된 전형자료를 심사 평가하여 개별 지원자의 입학 사정에 관련한 모든 과정을 주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교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자료를 축적,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형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일도 주요 업무입니다. 또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적응도, 대학생활에 관하여 조사하고 모니터링하여, 대학 교육을 통해 학생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이 고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길]

『악기장의 오동나무 찾기과 가야금』

가야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1070번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야금의 재료가 되는 오동나무는 돌산에서 빼 마르게 자란 것이라야 나이테가 송글고 육질이 단단하여 앞판의 재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평장은 심산유곡을 시간만 나면 수도 없이 돌아 다녀야 합니다. 비단 좋은 재목만 찾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춘하추동 찬 서리와 폭염, 비바람을 8년이란 시간 동안 이겨내야만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가야금의 목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사명도 가야금을 만드는 악기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목재를 찾아 전국을 다녀야 하듯 입학사정관도 우수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발품을 팔아 전국을 다녀야 합니다. 또한 목재를 찾아 나서기 전에 좋은 목재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고 좋은 목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목재를 구했다 하더라도 여러 단계의 과정을 통해 검증하고 선별해야 합니다.

깊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탄생하기까지의 시간 속에 녹아있는 악기장의 고뇌, 그것이 바로 우수인재를 발굴·선발해야 하는 입학사정관의 고뇌입니다. 비록 그 고뇌의 무게가 어깨를 무겁게 누르더라도 내일의 희망이 될 건실한 재목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상을 놀라게 할 인재를 발굴하는 충남대학교 입학사정관입니다.





왜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는가?

지금까지 대학들은 학생부, 수능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등 성적위주로 학생을 선발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초·중등학교에서는 지나친 점수 경쟁을 초래했고,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교육 기회 불균형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교육이념이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보다 시험 성적순의 일괄적인 학생 선발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래는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 '드림쏘사이어티(Dream Society)'입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잠재력이 경쟁력을 발휘할 미래 사회에서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설 우리나라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교육시스템 정착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입학사정관제가 확산되고 정착되면 성적 외의 전형자료들을 다양하게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소질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위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고, 대학 입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교와 대학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입시제도와 어떤 점이 다른가?

그동안 대학에서 진행해오던 신입생 선발과 입학사정관제도에 의한 신입생 선발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2학기 특별전형의 경우 특정분야에 공인된 성적이나 수상경력이 지원 자격에만 국한되었을 뿐 지원자를 평가하거나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교과, 비교과, 수능 성적을 기초로 학생을 선발했다면, 입학사정관제도에 의한 선발은 특정분야에 자신의 목표와 소질을 어떻게 결부시켜 개발하고 노력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비교과 영역에서의 활동과 이력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 판단에 의거하여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한마디로 결과보단 과정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02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입학사정관제와 함께하는
대학입학의 꿈, 충남대학교
대학 입학사정관제도

혹시?

입학사정관제는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입학사정관제도는 공부를 못해도 특이한 경력이나 수상 실적만으로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수능능력이 대학교육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학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오해

유명인과 화려한 경력자에게 더 유리하다?

입학사정관제도는 특례입학이 아닙니다. 특정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만 입학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을 통해 가치가 높아질 만한 소질을 가지고 있거나, 지원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학 교육이 조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이 직접 학생을 선발한다?

미국의 경우, 입학사정관이 학생선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입시과정을 주도할 뿐 직접적인 선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 입시과정에는 입학사정관 뿐 아니라 교수와 비상근입학사정관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03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입학사정관제와 함께하는
대학입학의 꿈, 충남대학교
대학입학사정관제도

도전!



도전!

입학사정관제에 도전하라.

꿈이 없다면 도전 할 수 없다!

꿈은 도전의 원천입니다. 무거운 땀을 흘리고 땀줄을 풀어야 항해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다면 어렵게 시작한 항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밀려왔을 때 기수를 돌려 다시 항구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꿈을 품은 항해사는 기수를 돌리지 않습니다. 폭풍우를 이겨내고 파도를 뚫습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꿈을 가진 그대에게 입학사정관제가 폭풍우 속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나, 입학사정관제로 대학갈래~~

대학 입학은 꿈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통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아닌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이며 훈련과정을 의미합니다.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입학사정관제 준비 TIP 6



하나,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 보세요.

모집요강에는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전형이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모집 요강을 꼼꼼히 챙겨 보는 노력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둘, 지원 분야에 대한 적성과 열정이 중요해요

자신이 목표로 하는 분야와 관계없는 대학 또는 학과에 지원한다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대학 입학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한 입학은 무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수학계획이나 진학의지가 담겨있는 계획서를 준비해두기를 권합니다.



셋,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화려한 경력과 유명세를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앞으로 이루어 갈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달려온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당신의 모습 자체가 합격의 열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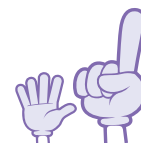
넷, 교과성적에 충실하세요.

입학사정관제는 성적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란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학업성취도 역시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들 대부분이 교과성적을 평가반영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글쓰기와 논리적 사고는 필수예요.

현재 입학사정관제도에는 다른 전형에 비해 면접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적은 분량의 글과 짧은 시간에 행해지는 면접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표출해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글쓰기 훈련과 논리적 사고의 습관이 자기소개서 작성과 심층면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과대포장과 거짓된 정보는 통하지 않아요

자신의 역량을 표출하기 위해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거나 남의 것을 베껴 써서는 서류심사 조차 통과 할 수 없습니다. 서류심사는 입시경력과 고교 교육과정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Cross Checking' 방식으로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면접에서도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과대포장되거나 거짓된 정보가 있다면 절대로 입학이 불가능 합니다.

#04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입학사정관제와 함께하는
대학입학의 꿈, 충남대학교
대학입학사정관제도

가자!



가자! 충남대학교, 입학사정관제와 함께

“ 이들의 60% 이상은 하루에 다섯 시간 미만의 수면을 합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하루 중 열 다섯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고, 거의 매일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보냅니다.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고3수험생들입니다.

굳이 고3수험생을 예로 들지 않아도, 교육열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학입시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크고, 연간 사교육에 지출되는 돈이 공공교육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과 맞먹을 정도니 말입니다. 꼭 교육열이 높은 데에서 기인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에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수학과 과학의 경우 각각 세계 2위, 4위라고 합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성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성취도에 비해 그 과목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는 국제 평균에도 못 미칠 만큼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은 높지만 그 과목을 재미있게 느끼지도 못하고 자신감도 갖지 못한다는 것, 우리 교육의 현실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과도한 입시경쟁과 성적제일주의라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성적 1, 2점을 더 얻기 위해 창의적 접근이나 논리적 사고가 아닌 암기 위주의 학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따로 있음에도, 지금껏 우리의 교육환경은 다양성을 중시하기보다는 획일적 구조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은 똑똑한 머리보다는 뜨거운 가슴과 열정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높은 성적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열정이 있고 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주도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 있어도 담대한 자세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뛰어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는 바로 그런 인재를 찾고자 합니다.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분야나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원석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석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원석은 충남대학교에서 잘 다듬어져 마침내 귀한 보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대학교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입학사정관이 다양한 전형안을 모색하여 왔고, 2010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사회적 봉사정신을 갖춘 풍부한 인격의 소유자, 충남대학교에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키워나가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육성할 것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는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하고, 다양한 전형 단계를 거칠 것이며, 내부감사시스템 등을 충분히 활용해 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입니다.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분산시키면 다양한 색깔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듯이, 충남대학교는 학생이 가진 다양한 면모를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CNU미래인재를 선발, 육성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과 열정, 자신만의 능력을 자신있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 김 용 환

아하~

전문가에게 듣는 입학사정관제도

대학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한 우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최완식 _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대학입학사정관제도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이 학업능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오던 원칙을 바꿔 1920년대부터 처음으로 사용한 제도이다. 초기의 도입 동기는 지금의 취지와 다소 달랐으나 근본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향은 학생의 기초 학업 능력, 교육 환경, 잠재력, 특기와 적성 및 소질, 교과 이외의 체험 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근간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그 취지가 비교적 바람직하게 발전하면서 '교육'이라는 포괄적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학생의 발달 결과를 평가할 때 대학에서 그 학생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육 평가 및 선발의 개념과 기준이 시험 점수 중심의 객관성으로부터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판단의 주관성으로, 과정과 여러 정황 및 특성을 무시한 형식적 공정성으로부터 그 학생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 공정성으로 일대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계에서 오랜 동안 강조해 오던 교육적 타당성 중심의 교육 평가와 학생 선발을 향한 변화가 시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현실은 많은 경우 1, 2점 차이로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어 왔으며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생의 입학성적과 학업성취도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자주 접하고 있다. 진로에 있어서도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인생의 진로를 개척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국가적으로 매우 소모적인 대학의 학생 선발 및 양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타당한 학생 선발 제도를 그 동안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학교는 문제 풀이 공부와 시험 대비 수업, 합격 최우선 진로 지도 등과 같은 단선적 지적 능력 편향적 교육으로 모든 것이 성적이라는 기준 변수에 회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에 빠져 있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할 때, 사정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대학의 선발 방법이 주어진 성적이나 객관적 자료보다는 학생의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고교 교육도 획일적 점수 위주의 비정상적 교육에서 바람직한 정상화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기대하며 희망을 갖는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루즈벨트, 케네디 그리고 최초의 흑인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등이 고교과정에서 결코 최고의 우수한 성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뛰어난 잠재력과 리더십 능력을 발휘하여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으며 그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로 양성되어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이 예시로 소개하였던 바와 같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MIT가 100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지원자 중 우리의 수능과 비슷한 시험인 SAT 만점자가 1600여명간혹 우리나라 학생 중 SAT 만점자가 나오면 언론에 소개되곤 한다)에 달하는데 정작 MIT에 합격한 학생 중 SAT 만점자는 40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학이 단지 성적 위주로만 학생을 선발하여 우수한 사회적 지도자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대학이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와 대학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과 평가 방식이 달라 고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진학 지도의 어려움이 과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대학의 사정관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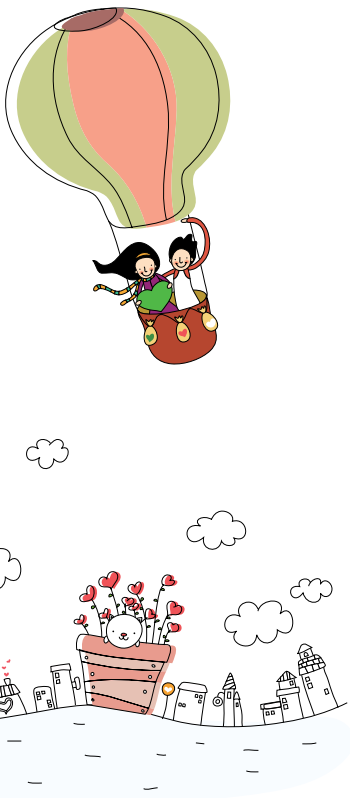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일 핵심 기인은 아마도 어떤 대학에 입학했느냐가 그 학생의 인생을 결정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향 때문일 것이다. 결국 학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면 죽음을 불사할 기세가 되는 것이다. 결국 무한 경쟁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한 한 줄 세우기 선발 방식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고 이 경쟁에서 승리한 자는 그 승자의 위치를 평생 가져가게 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쟁과 그를 통한 발전 시너지를 찾아보기 힘들게 만든다.

대학입학사정관제도는 그러한 면에서 상당부분 우리의 대학입학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단 사정관제는 한 줄 세우기가 아니고 여러 줄 세우기라는 것이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는 그 동안 가져 왔던 한 줄 세우기 패러다임을 버려야하며 대학이 대학의 바람직한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바람직한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양한 과외 활동을 학생들에게 시켜나가면 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독특하고 자율적인 학업 career를 만들어 나가고 대학에 지원할 때 그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바람직한 학업 계획서를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또한 설득력 있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면 된다. 어떤 경우는 한 학생이 고교 과정동안 평범하게 학업을 이수하고 기본 수학능력 정도만을 갖추었어도 특별히 다른 학생보다 다양한 문화적(음악, 미술, 체육, 봉사 등) 체험과 나름의 자질을 보여준다면 입학사정관에 의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대학입학사정관은 학생의 이러한 과정을 고교의 교육과정과 더불어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대학의 경우는 학생 선발 경쟁에만 경도되지 말고 우리사회 및 세계의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양성 경쟁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이는 대학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우수한 학생으로 길러서 그들의 숨은 자질을 함양시키고 사회의 지도자로 진출하게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그에 상응하는 학생 선발 기준을 개발하게 되고 대학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기준에 의하여 사정관들이 학생들의 잠재성과 창의성 및 소질을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입학사정관 제도는 그 대학의 학과, 학부,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라 입학 학생의 바람직한 양성을 위한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선발 제도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제 막 시작한 대학입학사정관제와 함께 우리의 대학은 자신의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고교 졸업자를 지혜롭게 선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고 대학이 선발된 학생을 좋은 인재로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해 나간다면 우리의 대학 교육과 고교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상화되리라고 믿는다.



2010학년도
충남대학교 입학사정관제 도입 전형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지원자격	모집인원
수시 2학기	입학사정관전형	PRISM인재	• 2010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열정(Passion), 책임의식(Responsibility), 학문적 소양(Intelligence), 성실한 자세(Sincere)를 갖춘 자 111
		농어촌학생	• 고교 재학 중 부모와 학생이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읍·면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소재 특목고 출신자는 제외 150
	입학사정관참여전형	선호형 및 사회봉사자	• 고교재학 중 광역시·도 이상의 공공기관장이 수여한 선호형 또는 모범 봉사 관련 개인 수상자 • 고교재학 중 학생부에 기록된 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 • 고교 재학중 학급반장(2개 학기 이상) 또는 총학생회 회장(부회장)을 역임한 자 51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심사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10
		전문계고 – 일반학생	•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실업전문교과 70단위 이상 이수자 • 출신고교 학과와 동일계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173
		전문계고 – 지역협력공업계 고교장추천자	• 전문계 고교출신 일반학생 자격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본교와 협약 체결한 대전시내 공업계 고교졸업예정자로 고교3학년 교과성적 평균등급이 4등급 이내인 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17

***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세부사항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www.cnu.ac.kr)에 게재합니다.